

# 사유하고 성찰하라... 인생 후반기 지침서

## 어른의 인생 수업

성지연 지음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지. 세상 만물은 모두 한 가지라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브라질 유명한 작가 파울로 코엘료가 지난 1988년에 펴낸 ‘연금술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소설은 양치기 소년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아 떠나는 이야기다. 꿈을 이루어가는 소년을 다룬 소설은 울림을 준다.

책은 꿈이 무엇이고 묻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는 곧잘 미래에 대한 꿈을 꾸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갈수록 그 꿈을 잃어버린다. 하루하루 밥벌이에 지쳐 꿈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바쁜 일상을 산다.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어른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은 한번쯤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숙고하게 한다. 저자는 연세대에서 최인훈 소설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던 성지연 박사. 성 박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주간지에 ‘오십, 길을 묻다’를 연재했다.

‘호모 헨드레드’(homo hundred), 인생의 절반을 통과한 저자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사유를 담아낸 인문 에세이다.

“내 나이쯤 되면 삶에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선명해지고, 더는 흔들릴 일이 없는,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될 줄 알았다. 젊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 건 없다. 외려 반쯤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마음만 더 급해진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앞으로 남



저자는 ‘어른의 인생 수업’에서 제2의 인생은 자신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말한다. <인물과사상사 제공>

은 삶에선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를 지금 생각해놓아야만 한다.”

저자는 50권을 가려 뽑아 그곳에서 길어 올린 삶이 깨달음을 이야기한다. ‘노인과 바다’, ‘미움받을 용기’, ‘밤으로의 긴 여로’, ‘파우스트’, ‘자기만의 방’, ‘죽음의 수용소’, ‘제2의 성’, ‘호모 사피엔스’, ‘호모 루덴스’ 등에서 의미와 행간을 읽어낸다.

저자는 ‘노인과 바다’에서 결코 패배란 없다는 인식을 일깨운다. 소설 속 노인이 고기를 잡은 것이 성공이 아니듯 빼낸 남은 물고기를 갖고 돌아오는 것 역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다. “성공과 실패는 바다를 경쟁자, 투쟁장소, 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이야기다. 노인은 다만 어부로서 생계에 진지했고 바다와 물고기를 사랑했다”고 언급한다.

저자는 ‘파우스트’를 통해서도 성찰을 이야기한다. 무모한 열정은 결국 비극으로 치닫기 때문이다. 파우스트는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즐거움에 탐닉한다. 파우스트가 추구했던 지고의 순간은 파국의 순간과 맞닿아 있다. 저자는 ‘파우스트에게 걸려진 것은 잠시 멈춰 돌아보는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는 힘이다’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책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어떻게 잘 살고 싶은 이들을 위한 인생 처방전이다. 저자는 마음에도 근육이 필요하고 그것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김주환의 ‘회복탄력성’ 가운데 한 구절을 소개한다.

“강력한 회복탄력성의 기반이 되는 진정한 행복감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서 오는 것이 외부적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인물과사상사·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뒤라스X고다르 대화=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마르그리트 뒤라스와 장-뤽 고다르의 대화가 담긴 책. 소설가이자 영화 감독이기도 한 뒤라스, 영화평론가이자 영화감독인 고다르의 이야기로 이미지의 재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뒤라스와 말이 지닌 특권과 우선권에 적대감을 표하며 이미지와 말의 연결고리인 해온 고다르가 대화하며 반대극의 인물들이 대화를 통해 연결시키는 것들을 발견시킨다. <문학과지성사·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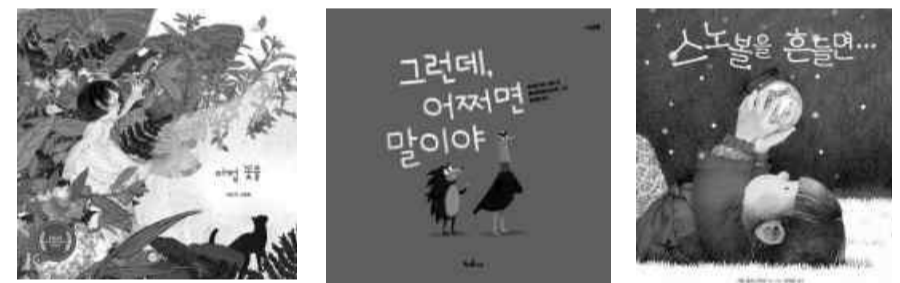
▲모든 삶은 빛난다=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현대인들에게 철학자 안드레아 콜라메디치와 마우라 칸치타노는 먼저 인생이 힘들어진 원인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수천 년 동안 존재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거의 잊혀진, 존재 전체를 다루는 구체적 성찰이자 삶의 기술로서의 철학을 이 책에 담았다. <시프·1만7500원>

러기 위해선 육신과 이별해야 한다. 박라연은 그것이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꿈이라고 말한다. <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아무것도 안 하는 애인=‘저쪽 세계에서 지금 나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입 소문을 받았다 그 떨림을 마실 때 모르는 세계이지만 훌쩍 찾아 나서고 싶더라’... 데뷔 32년째를 맞은 시인 박라연의 아홉번째 시집, 특유의 따뜻함과 섬세함을 담아 한층 깊어진 시 세계가 펼쳐진다. 박라연에게 생은 앞 뒤로 열려있어 현생에 발을 붙이고서도 다른 생을 향하고자 하지만 그

▲세상을 그리는 아이=전 세계 3만명의 팔로워와 소통하는 우리나라 화가 레오 박소훈, 3년 전부터 유럽 국가를 여행하며 봤던 건축물과 도시 풍경을 배경으로 직접 그린 그림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소년이 중학교 1학년 학생이라는 것. 책에는 레오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담은 작품 90여점이 실려 있다. <청어람미디어·2만3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마법꽃물=아빠와 함께 집을 지키던 주인공 은우는 검은 구름과 함께 몰려오는 태풍이 무섭다. 아빠는 태풍이 오기 전에 은우에게 봉숭아 잎을 따서 손톱을 물들이자고 제안한다. 아빠를 따라 밖으로 나가긴 하지만, 은우는 집에 돌아오고 있는 엄마 생각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은우의 속을 아는지 끊임없이 봉숭아 얘기만 하는 아빠, 그런데 그런 아빠에게도 무서운 게 있다고 한다. <노란상상·1만4000원>

깊을 막고 산딸기를 모두 따 먹어 버리며 방해한다. 우리는 톨톨대며 화를 내고 그때마다 고슴도치는 ‘그런데, 어쩌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한다. <책과콩나무·1만3000원>

▲그런데, 어쩌면 말이야=자전거가 고장나 고치기 위해 인근 가게로 향하던 오리와 고슴도치, 가는 길마다 오토바이를 탄 고양이가, 염소아저씨, 여우 아주머니가 흠뻑지를 일으키고 커다란 바위로

▲스노볼을 흔들면=크리스마스 이브, 루시와 윌리스 남매는 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눈이 내리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마법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눈은 내리지 않고, 그러던 중 루시에게 아이슬란드에 사는 대모님이 스노볼을 보내왔다. 잠이 오지 않는 밤, 루시는 실며시 스노볼을 흔들어보고, 크리스마스의 마법이 찾아온다. <책읽는곰·1만4000원>

# 그 시절 힘이 되어 준... 당신의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가요

## 덕분이예요·졸업해도 되나요

정현우·신미나 외 지음



안희연 시인은 소고기 볶음 고추장 한 숟가락이 어린 자신에게 희망이었다고 말한다. 아버지를 떠나 보낸 아홉 살, 열 살 자매에게 피아노학원 선생님은 학원에 두던 반찬을 함께 먹자 권했고, 그 맛은 자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갖게 해주었다. 또 책의 연대를 알게 해준 국어선생님의 다정함도 그는 잊지 못한다.

연말연시에는 고마웠던 사람들을 한번쯤 떠올리게 된다. 한 해를 마무리 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요즘 읽기

좋은 두 권의 에세이집이 나왔다. ‘덕분이예요·내게 힘이 되어 준 사람들’, ‘졸업해도 되나요·열 아홉의 기쁨과 슬픔’이다.

‘덕분이예요’는 여덟 명의 작가가 청소년 시절 곁에서 자신을 지켜준 이들을 떠올리며 쓴 에세이집이다.

정현우 시인은 보육원에 살던 친구와 보낸 시간들에 대해, 김나영 평론가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방생반으로 도착했던 사연과 신정곡들에 담긴 이야기로 허전한 마음을 채웠던 일들에 대해 썼다.

신유진 작가는 익산역 미군 폭격 사건에 이어 민주화 운동으로 아들의 옥살이까지 지켜본 할머니에게서 삶에 대한 의지를 배웠다고 말하며 최지혜 교사는 남에게 보이기 부끄럽다고 생각했던 낯은 집이 행복한 보금자리였음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밖에 배수연, 최현우, 서윤후, 정재을 작가가 참여했다.

‘졸업해도 되나요’는 작가들이 자신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며 쓴 에세이다. 신미나, 안미옥, 정유한, 임국영, 이현석, 구달, 권누리 작가가 참여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던 신미나 시인은 친구들과 자격증을 따며 취업에 열을 올릴 때 공장을 운영하는 형부에게 청해 가짜 ‘취업 증명서’를 제출하고 부모 몰래 수능시험을 치르며 헛헛하고 후련함을 느낀다. 그리고 자신의 ‘소녀시대’가 끝났음을 느낀다.

안미옥 시인은 토니와 손호영을 지나 성시경으로 이어지던 화려했던 ‘덕질’의 역사와 ‘시 쓰는 아이’였던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예술고 문예창작과에 입학했다 자퇴한 송희지 시인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내다 참석한 누나의 졸업식에서 ‘학교에 계속 다녔으면 어땠을까’ 잠시 생각해 보며 느낀 감정을 전하고, 소설가 정유한은 좋아하는 마음을 거절했지만 늘 다정함을 잃지 않았던 선배 덕분에 청소년 시절을 무사히 졸업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두 권 모두 청소년들에게 권해도 좋은 책이고, 나의 그 시절을 한번쯤 돌아보게 되는 책이기도 하다.

<창비·각 권 1만3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